

고병원성 AI 방역강화 방안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건의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를 방문하여 정부의 차단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농장의 잦은 입출입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2월 19일 현재 기준 고병원성 AI 발병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과도한 농장 출입이 오히려 교차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현재(12.19.)까지 고병원성 AI 발생 22건 중 오리는 8건(36%)

- 12.19.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22건 중 산란계 12건, 오리 8건, 육용종계 2건
- 2023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은 22건으로 2022 동절기 48건에 비해 26건이 적게 발생한 상황

◎ 정부는 금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차단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나 검사 및 점검을 위해 오리농장의 출입이 우려되어 개선방안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

- 주요 방역강화 방안으로는 보호지역(500m~3km) 5일간격 검사, 현장점검반 점검시 CCTV 영상확인 등 점검시 농장출입 의무화
 - 계열업체의 계열농가 방역점검은 매주 1회이상 현장 점검, 현장점검 시 CCTV 영상확인, 소독·세척상황 사진제출 등



[방역강화개선방안]

구분	조치내용 (농장 출입횟수)	개선(안)	사유
차단방역 강화방안	보호지역 (500m~3km) 5일 간격 검사 (8회)	분동 후 폐사체 검사 * 분동전 병아리는 검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동전 병아리는 AI 발생 확률이 낮고 지나친 검사가 발병 위험을 높임 • 보호지역 내 가금농장들의 잦은 검사로 교차 오염이 크고, 사육성적 저하 우려
	점검반 점검시 CCTV 영상 확인 (1회)	주1회 소독 사진 소속 계열사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은 농장 내 관리사에 저장 장치가 있어 점검반의 농장 출입은 교차 오염 우려
계열사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회의 자료	계열소속 농가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	현장 점검 불가 주1회 사진 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계열 소속 농가에 교차 오염 우려, AI 발병위험으로 직원의 농장 출입 불가
	CCTV 영상 매주 확인 (6회)		
	매주 소독·세척 사진 제출 (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 지자체에 소독 실적 사진 제출, 전화 예찰로 농가는 과도하게 시간 필요 • 고령의 농장주가 방역복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여 매일 보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지자체, 정부에 소독 실적 보고를 일원화 필요